

드라마 '흑기사' 여배우 3인 '열일하네'

신세경·서지혜·장미희 여신 미모 화제 수목극 시청률 1위·방영 뒤 댓글 폭발 연기력 더해져 대체불가 캐릭터 찬사

“신세경 얼굴만 봐도 한시간 후딱 가요. 미모 천재 신세경”(네이버 아이디 'ppoh * * * * *')
“서지혜 여신 미모”(최유진)
“장미희 씨 너무 예쁘다. 나이가 많은데도 들어 보이지도 않고 너무 멋있네요.”(sunn * * * * *)
여배우 3인방의 미모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드라마가 있다. KBS 2TV 수목극 '흑기사'다. 판타지 로맨스에 코미디를 버무린 '흑기사'는 신세경(27), 서지혜(33), 장미희(60)의 세대 불문 미모 경쟁으로 겨울밤을 후끈 데우고 있다.

◇ 신세경, 청초한 미모 꽃피워 - 1인2역 도전도
신세경은 올해 tvN '하백의 신부'를 거쳐 '흑기사'에서 미모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살이 빠지고 한결 얼굴선이 가름해진 신세경은 때때로 시도한 단발머리 변신이 성숙해진 미모를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뿌리깊은 나무' '패션왕' '남자가 사랑할 때' '냄새를 보는 소녀' '육룡이 나르샤' 등에서 줄곧 긴머리를 고수했던 신세경은 '하백의 신부'에서부터 경쾌한 단발머리와 함께 슬림한 몸매를 강조하는 몸매에 딱 붙는 날렵한 패션을 선보이며 세련되게 거듭났다.

동시에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흑기사'의 이원 구조 속에서 신세경의 사극 분장은 그의 청초함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서는 얼굴이 인두로 지져져 흉터가 생겼음에도 그의 미모를 가리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진짜 미모가 미친 거 같아. 점점 예뻐지네. 미모 전성기다”(junh * * * * *), “신세경, 넘 예쁜 거 아닙니까. 현대물인데 사극이든, 흉터가 있는 누더기를 입든 저 눈신 미모가 감춰지지 않네요”(yyc5 * * * * *) 등의 댓글이 이어진다.

신세경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흑기사'에서 1인2역에도 도전해 연기적으로도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 서지혜, 질투에 휩싸인 매력적인 악녀 사론
서지혜는 '흑기사'의 악녀 '사론'을 통해 데뷔 12년 만에 매력이 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질투에 휩싸인 마녀 같은 사론은 주인공 해라를 위협하는 존재지만 옛지 있는 캐릭터가 매력이 넘치면서 시청자의 지지를 받는다.
또한 양정주 주인공이자 디자이너로서 사론이 선보이는 우아하고 섹시한 패션이 서지혜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신

세경의 미모가 서지혜에 밀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데뷔 이래 청순하고 참한 역할만 해오던 서지혜는 지난해 SBS TV '질투의 화신'의 '홍혜원'을 통해 당돌하고 섹시한 캐릭터로 180도 변신했다. 왜 이제야 변신했을까 싶을 만큼 '홍혜원'을 멋지게 소화해낸 서지혜는 여세를 몰아 '흑기사'의 사론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었다.

꽤나 높은 안하무인이지만 200년째 사랑을 목을 매고 있는 이 독특한 캐릭터는 서지혜를 위해 탄생한 듯하다. 타고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인공으로 발돋움하지 못했던 서지혜는 사론을 통해 '서지혜의 발견'을 이루게 됐다.
“서지혜 매력 있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여기서 매력 터지네요. 악녀인데 귀여워요”(‘공뚜루루’), “아 서지혜 이렇게 예쁜 악녀 오랜만. 미워할 수 없다”(‘버블들’), “이렇게 예쁜 서지혜가 그동안 왜 못 봤을까 정말 의아해요”(‘ou59 * * * * *’) 등의 평가가 나온다.

◇ 장미희, '환갑'이 믿기지 않는 방부제 미모
장미희는 '환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방부제 미모와 귀여우면서도 기품있는 연기로 화면을 장악한다.
그가 맡은 장백희는 사론과 함께 200년도 넘게 '구원을 떠도는 귀신'이다. 장미희는 조선시대 우아한 마님부터 오랑캐 두목, 군밤 장수 모자를 뒤집어쓴 트럭 운전사, 현재의 기품있는 문화해설사까지 능수능란하게 넘나들며 드라마의 윤희유가 되고 있다.

표정 하나, 동작 하나, 말투 하나에 모두 우아함과 세밀함이 살아있어 무릎을 치게 만들고, 변함없이 빛나는 미모가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긴장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사치미 톡 때고 펼치는 코믹 연기가 폭소를 자아낸다. 7화에서도 어린아이 영당이를 때려주듯 갑자기 큰 사론의 영당이를 때리는 연기와 아반도주하듯 트럭을 운전하고 내달리는 모습이 압권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론의 방해를 저지하고, 운명의 짝인 해라와 수호(김래원 분)를 맺어주기 위해 손을 쓰는 장백희는 죽지 않는 귀신이지만, 행운의 여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든다.
“장미희, 대체불가 캐릭터”(‘KDY’), “장미희, 연기 잔 디테일 미쳤다”(‘jaylee87’), “장미희 언니? 이모? 와~ 진짜 캐릭터 너무 멋지게 소화하셨”(‘슈루루룩’) 등 감탄이 쏟아진다. /연합뉴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세경·장미희·서지혜

“나와는 다른 타인 이해하기 힘들어”

EBS '지식채널@-타인' 문근영 출연

EBS TV '지식채널@'은 신년기획으로 8부작 '타인'을 1월 한달간 방송한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내용으로, 배우 문근영(사진)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등이 화자로 나선다.

제작진은 2일 “‘나’와 다른 것을 잡지 못하는 혐오의 시대, 타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너’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문근영 편은 3~4일 밤 12시25분에 방송된다.
3일 '타인이 되는 시간'에서 문근영은 끊임없이 '남'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온종일 '내가 이 인물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물을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배우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그는 짚는다.
문근영은 “서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다”며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싶어 하는 관계”라고 말한다.
4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는 12세에 데뷔해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은 문근영이 31세가 될 때까지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근영은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타인의 이해를 받으려고 너무 애를 필요 없었던 것을 알게 됐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던 사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광주MBC 뉴스 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VJ 특공대(재)	50 로봇이 아니야(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0 흑기사(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12 MBC 뉴스 20 앙크르MBC 스페셜 (춧불 1년 특별기획 블랙리스트, 춧불을 만나다)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겨울광학특선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2017 KBS 영상실록		25 하하랜드 스페셜	
2	40 특집다큐 범죄예방보고서 당신이 사는 곳은 안전할까?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차부회상 위키 2	30 MBC네트워크특선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한 지도(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뽀글이 사랑해 4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10 통일전망대	00 세상에서 가장 힘든 등굣길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절리고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익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헬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으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남도 스페셜 20 UHD 한식(재)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스페셜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신년특집토론 2018 대한민국 갈등 넘어 대통합			
10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40 KBS 뉴스 50 문화의 향기	10 김성민의 영수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신년특선영화 (사도)
12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20 세상의 모든 다큐(재)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하말리아 새해맞이 -천년의 기도, 중국 통령 문명제)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홍시 봉통겉절이와 돼지불고기)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융합한 소방차 레이	12:00 EBS 정오 뉴스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e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12:45 EBS 초대석(재)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13:40 미래강연 Q(재)
08:45 한글이 야호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00 똑딱맨	15:00 마사와 곰
09:15 두더지공(재)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러올 삼국전	20:50 세계테마기행 (소수민족의 고향 리모스 3부 몽족의 오래된 눈물)
16:15 주시위 요청 큐비주	21:30 한국기행 (천바람 불면 내가 울까 3부 천바람 맞고 서 있어도)
16:30 한글이 야호(재)	21:50 EBS 다큐프라임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황금의 전설)
16:45 뽀롱뽀롱 유치원1~2(재)	22:45 극한직업 (헬스기구와 수제등산화)
17:15 융합한 소방차 레이	23:35 장수의 비밀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24:25 지식채널e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4:30 미래강연 Q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몬카르(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20:40 다큐 오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1월 17일 乙未)

<p>子</p> <p>48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과대심 말라. 60년생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72년생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었다. 84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90, 32</p>	<p>午</p> <p>42년생 우선 상대의 말을 하지도 배짱없이 경청하라. 54년생 당래 과제는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었다. 66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8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나라. 90년생 희소식을 듣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8, 46</p>
<p>丑</p> <p>49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61년생 흥사가 뒤따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73년생 부실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로 보면 된다. 85년생 곧 강동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47, 07</p>	<p>未</p> <p>43년생 기회가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5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67년생 길은이 한창 피어날 때이다. 79년생 결정은 속히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91년생 확실한 이득이 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58, 74</p>
<p>寅</p> <p>50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62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74년생 겸손함이 최다의 재산임을 알자. 86년생 인위적이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간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2, 49</p>	<p>申</p> <p>44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이해하고 타협하라. 56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68년생 단 번에 판권을 날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80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91, 00</p>
<p>卯</p> <p>51년생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63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75년생 폭우의 조짐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처하라. 87년생 형세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행운의 숫자 : 45, 21</p>	<p>酉</p> <p>45년생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버려도 된다. 57년생 총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 69년생 지금 결행하지 않으면 후회, 막급할 것이다. 81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9, 05</p>
<p>辰</p> <p>52년생 단처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도다. 64년생 서두르다면 빈틈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76년생 지금 잘 관리해 둔다면 향후의 효용성을 높인다. 88년생 지금 즉시 전환 시킨다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30</p>	<p>戌</p> <p>46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58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70년생 개털에 베풀 거둬 하겠다. 82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느긋하게 마음먹고 우선 착수하고 보면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64, 35</p>
<p>巳</p> <p>53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보겠다. 65년생 미끼할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77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89년생 주관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 않은 지 냉정하게 뒤돌아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1, 86</p>	<p>亥</p> <p>47년생 이미 가득이 잡히고 있으니 세밀하게 살펴내감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음을 알라. 59년생 순발력 있는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71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다. 83년생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61, 7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